日 소재 백제금동관음입상 환수 본격화

문화유산회복재단 등 5월 8일 부여군청서 기자회견

정성 · 정량적 환수 방법 전개
부여군의회도 관련 조례 추진
"환수 행정 · 연구 지원에 방점"

관음상 현재 中 반출돼 전시
"수 · 당 영향"… 백제는 삭제
동북공정통한 역사왜곡 가능성
"관음상 환수, 불교도 나서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지난해 일본에서 발견된 백제 금동관음보살입상에 대한 국내 환수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재)문화유산회복재단(이사장 이상근)과 충청남도반출문화재실태조사단(단장 김연)은 5월 8일 부여군청 서동브리핑실에서 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 환수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단체들은 "1945년 이후 우리나라 정부가 환수한 문화재는 모두 10,120점이며 그 중 4건만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고 밝히며 "일본으로 반출된 백제금동관음입상은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제금동관음입상은 1907년 충남 부여 규암리 들판에서 발견한 두 점의 금동관음입상 중 한 점이다. 당시 일본 헌병대에 압수되었다가 경매를 통해 일본인 수집가 이치다 지로가 사들여 일본으로 반출됐다.

1930년대 이후로 행방이 묘연했지만 지난해 여름 일본 기업인에 의해 국내에 공개됐다. 현지에서 관음상을 실견한 학자들은 백제 최고의 불상조각이라고 평가했고, 이에 환수 여론이 확산됐지만 환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부여군과 충남도는 지난해 연말부터 국외 반출 문화재에 대한 소재 파악 및 연구 등을 진행했고, 지자체 차원의 환수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문화유산회복재단과 조사단은 "문화재청 · 국립박물관 · 충남도 · 부여군 · 국회 등이 참여하는 뉴거버넌스를 구성해 국내 전시 등을 통한 연내 환수 합의를 목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은 "그간 관음상의 환수를 물질에 의존한 정량적 접근만 해왔다. 앞으로는 조사 · 연구 · 전시 등을 통한 정성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관음상 환수를 위한 정성 · 정량적 방법을 모두 활용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07년 충남 부여 규암리 들판에서 발견된 백제금동관음입상. 일본으로 반출됐다가 지난해 여름 확인됐다. 현재는 전시와 연구를 위해 상하이박물관으로 이운된 상황이다.

환수를 위한 부여군 차원의 지원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부여군의회(의장 송복섭)에는 '부여군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 환수 활동 및 지원 조례안'이 상정된 상황으로 오는 5월 17일 제정될 예정이다.

박상우 부여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 환수 활동의 기본계획 수립 △조사단 구성 및 활동 사항 △환수 및 관리 △기관 및 단체의 지원 · 육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군 단위의 지자체에서 국외 문화재 환수와 보호를 위한 조례를 지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박상우 의원은 "부여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 역사도시 중 한 곳이다. 하지만 국외로 반출된 부여 소재 문화재들이 많다"면서 "조례가 제정되면 환수를 위한 조사단 구성과 조사 · 연구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백제금동관음입상이 최근 중국으로 반출돼 현재 상하이박물관 문물보호과학기술센터에 소장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이제 불교계도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백제 관음상이 중국미술의 꼬리표를 달 수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으로 반출된 백제금동관음입상은 연구 · 분석 이후 상하이박물관의 '영원한 실크로드-불교예술의 기원' 전시회에 출품된다. 관음상의 분석은 중국 불상 전문가인 계숭건(季崇建) 상하이시각예술대학 문물보호복원학과 부원장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음상에 대해 계숭건 부원장은 "금동관음입상은 비록 한국의 삼국 시대 작품이지만 중국 수나라 시기의 불교 조각상 제작 수법의 영향을 받았다. 당나라 시대의 관세음입상의 3단 곡절형 예술적 특징을 반영했으므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해설하고 있다.

이 같은 해설을 입수 · 제보한 최응천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는 "6세기만 가도 삼국은 독자적 형식의 불상을 만들기 시작했고, 7세기 백제 불교미술은 전성기를 맞았다. 일부 영향은 받았겠지만, 중국불교미술의 일부라는 꼬리를 달아야 할 정도는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화재청과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우리 국보급 문화재가 역사왜곡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면서 "이제 불교계도 환수를 위한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관음상의 한국 전시가 추진되고 이를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경전과 조사어록 제10차 대강좌 개강

대승불교의 핵심경전인 〈화엄경〉과 남방불교의 기본수행서인 〈청정도론〉 등을 배울 수 있는 강좌가 마련된다.

불교인재원(이사장 엄상호)은 5월 27일부터 8월 19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조계종 전법회관 지하 1층 교육관에서 제10차 불교경전과 조사어록 대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서는 〈화엄경〉 입법계품, 남방불교 수행서인 〈청정도론(위숫디막가)〉, 동방의 이슙우화로 불리는 〈백유경〉, 조주 스님의 〈조주록〉 등에 대한 강의가 매주 1회 총 12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주 내용은 해인사 前승가대학장 원철 스님의 〈화엄경〉, 김재성 능인불교대학원대 교수의 〈청정도론〉, 서재영 박사의 〈백유경〉, 박희승 불교인재원 이사의 〈조주록〉이다.

엄상호 불교인재원 이사장은 "불교를 바르게 이해해 중도 정견으로 생활속에서 실천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경전에 참뜻을 익히고 실천해 행복의 길로 가길 바란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불교인재원은 대한불교진흥원과 경주 황룡원에서 5월 26일부터 '밝은 마음 화두 명상 캠프'를 연다.

노덕현 기자



법륜사에서 사찰예절을 배우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

北이탈주민 적응 도운 템플스테이

용인 법륜사, 5월 4~5일 새터민 가족 대상으로

용인 법륜사가 북한이탈주민 가족들의 국내 정착을 돕는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법륜사는 5월 4~5일 경내에서 용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50여 명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내 꿈을 응원하고 이뤄가는 행복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린 템플스테이는 △사찰예절 교육 △산사음악회 △소원등 만들기 △새벽예불 △전통다례 등이 진행됐다.

첫날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불교의 전통예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람의 구조와 사찰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보냈다. 아울러 전통사찰음식으로 저녁공양을 마치고, 함께 산사음악회를 즐겼다. 저녁에는 각자 자신의 소원을 적은 '달님등 만들기'를 체험하며 소원성취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이튿날에는 새벽예불 이후 법륜사 둘레길인 '다시 꿈꾸길'을 산책했다. 이어 스님과 함께 전통다례체험을 하며 차를 우려내고 마시는 다도법을 배웠다.

윤호섭 기자

봉은사, 거사불교 중흥 나선다

5월 10일 '거사림회' 창립법회 봉행

사회 각계 130명으로 구성
정기법회 및 포럼 강연 등
새 신행문화 개척에 기대

"천년고찰 정법포교도량 1번지 봉은사에서 거사림회 창립법회를 맞이한 저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겠습니다. 불국토로 나아가도록 불퇴전의 용기를 주옵소서."

5월 10일 봉은사 법왕루가 우렁찬 남성불자들의 목소리로 가득찼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가 처음으로 거사불교를 되살리기 위한 거사림회를 창립한 것이다. 거사림회는 청신사(우바새)로 구성된 남성불자 신도회다.

이날 창립법회는 경과보고와 회장단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주지스님의 인사말, 신도회장 축사, 거사림회 회장 인사말, 봉은국악합주단의 축하공연, 발원문 봉독 순으로 진행됐으며 1000여 명의 불자들이 모여 거사림회 발족을 축하했다. 이번 봉은사 거사림회에 가입한 남성불자들의 면면을 보면 윤석일 거사림회 회장을 비롯해 법조계, 의료계, 교육계, 방송계, 예술계 등 사회 각계 각층 남성불자들로 이뤄져 있다. 신도회에 따르면 윤 거사림회장은 강원도민중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노원구에서 구소년고녀장학위 위원과 대신고 장학위원 등을 오랫동안 지냈다.

봉은사 거사림회는 구성까지 치열한 과정을 거쳤다. 봉은사는 2018년 신도회 내 거사림회 창립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에 올해 3월부터 신도회 운영위원회와 사찰 종무회의 심의를 거쳐 거사림회 창립을 준비해왔다.

봉은사는 당초 108명의 회원 확보를 목표로 진행했지만 올해 3월 20일 회원 모집 공고 후 가입신청서 제출한 불자가 150여 명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주지 스님과 사중 스님, 신도회장을 비롯한 신도임원들로 구성된 거사림회 인선위원회를 조직해 2개월간 심의를 거쳤다. 이를 통해 130명으로 최종 거사림회 구성을 완료했다.

봉은사 거사림회는 향후 월 1회 정기법회를 비롯해 사회 저명인사의 초청강연과 포럼, 순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봉은사에서 남성불자들로 구성된 거사림회 창립은 최근 신도수 감소로 포교전략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종단적 입장에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봉은사 거사림회의 발전적인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라고 격려했다.

김상훈 봉은사 신도회장은 "130여 명의 거사림회 회원의 숫자가 적을 수도 있지만 신도회의 지원을 통해 거사림회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끌겠다. 우리 남성불자로 구성된 거사림회가 한국불교 신행에 있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일 거사림회 회장은 발원문을 통해 "삼보의 가르침을 힘써 배우고, 수행결과를 실천하겠다. 회원 상호간 소통과 화합으로 거사림회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산사의 신록' 기차 타고 즐겨볼까?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코레일관광개발과 함께 템플스테이 및 지역관광지를 연계한 1박2일 '템플스테이 기차여행'을 운영한다. 5월과 6월 총 세 차례에 걸쳐 기차로 이동하기 좋은 양평 용문사, 양양 낙산사, 인제 백담사와 인근 명소를 결합했다.

가장 먼저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용문사 템플스테이는 '가정의 달, 힐링여행'을 주제로 5월 18~19일 진행된다.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낙산사 템플스테이 기차여행은 6월 8~9일 진행된다. 동해 일출 감상과 참선, 스님과의 차담 등이 마련돼 있다. 인근 관광지로 대관령 치유의숲과 대관령 양떼목장 등을 방문한다.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백담사 템플스테이 기차여행은 6월 22~23일이다. 요가형 108배, 숲 명상, 연꽃등 만들기 등의 체험이 준비돼 있다. 인근 명소로 원대리 자작나무숲과 춘천육림고개시장 등을 살펴본다. 1544-7744

윤호섭 기자

